

서울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 축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YMCA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MCA를 이끌어 오신 분들께 인사드리려다 보니 아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해외에서 축하하기 위해 오신 손님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YMCA 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독교인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감사와 축복을 느낍니다. 저와 YMCA의 인연은 제가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YMCA에서 '노동자교실'의 교장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노동자들과 함께 거창으로 가서 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뒤에 YMCA 시민중계실 상담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가입 권유를 하셔서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이사직까지 시켜 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YMCA의 열린 사업방식에 대해 매우 푸근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회원이라는 생각으로 YMCA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활동에 눈뜨게 된 것도 그때 시민중계실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 뒤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하나 둘 참여하면서 공해문제, 인권문제에 눈뜨게 됐습니다. 목사님들만 참석하는 인권위원회에도 저를 전문위원이란 자격으로 참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인권위원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YMCA는 세계 인권에 관해, 사회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길잡이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YMCA는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직 좀더 살아 봐야 제 인생이 성공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YMCA 여러분이 저를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YMCA처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시대에 알맞은 사상과 행동방향을 가지고 운동해 나가는 모임이 YMCA인 것 같습니다.

민족이 억압받고 있을 때 민족정신을 일깨운 운동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의 불의가 사람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을 때에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항상 그 판단은 그 시대보다 한발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닥친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시대의 흐름을 조금 앞서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앞서서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YMCA 운동이 가장 합리적인 운동의 모범이 아닌가 항상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 YMCA가 잘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면 맞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 지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과 양심을 항상 상징하고 있는 조직과 행동의 모범을 YMCA에서 찾으려면 참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람되이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시민사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워 온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저항의 역사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단지 저항과 투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얻어지는 합의와 타협, 즉 공존의 지혜,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보다 더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는 조정의 운동,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했습니다. 저항운동의 참여도 중요한 참여이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참여의 의미는 1970~80년대 우리가 싸워 왔던 참여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참여, 참여 시민이 책임지는 참여의 의미가 아닌가, YMCA 운동이 이 방향으로 이미 전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분권을 향한 개혁운동으로도 내부적 혁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고통은 분열과 대립, 불신과 증오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그것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이,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못해 내고 있습니다.

다. 국민 여러분께 참 미안합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MCA 회원이라고 얘기를 할까 말까 한참 망설였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 내놓아도 한 점 티 없는 떳떳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김 없이 존경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모자람이 없다면, 제가 정말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지금도 나는 YMCA 회원이라고 말했을 텐데, 우물쭈물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회원자격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하는 미래가 한국사회의 미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의 가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나란히 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